

2022, 뜨겁게 안녕!



2022년의 달력도 마지막 한 장이 남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올 한 해도, 이렇게 가는구나!’, ‘나는 올해 무엇을 했지?...’

혹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쉬워 마세요.”, “괜찮아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고, 그 어느 때 못지않게 열심히 했다는 걸 아니까요.

그러니 우리 조금은 아쉽더라도, 다시 또 힘차게 시작될 2023년을 기다리며!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한, 나와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따뜻:한난>이 가장 먼저 박수를 보내드릴게요. 짹짹!

따뜻:한난

채우면 채울수록 따뜻해지는 세상

뜨거움

뜨거운 사랑을
세상에 전하다

Nov+Dec 2022

Vol. 221

Contents



COVER STORY

연말입니다. 벌써 2022년의 마지막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그래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연말이면 특별한 날, 크리스마스도 있고 길거리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군고구마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번호에는 연말에만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눈이 평평 내리는 어느 겨울밤,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를 보며 누구보다도 뜨겁고 찬란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세요!

표지 일러스트 정아리

www.kdhc.co.kr
www.youtube.com/c/kdhcmedia
blog.naver.com/kdhc2017
www.facebook.com/FKDHC
www.instagram.com/kdhc_on

발행일 2022년 12월 15일(통권221호)
등록 1993년 11월 30일
신고번호 성남, 마00027
발행처 한국지역난방공사
발행인 정용기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기획·디자인 경성문화사 02)786-2999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난
웹진 바로가기

Section 따뜻한, 난

04

순간의 기록

우리 인생의 온도는 '뜨거움'

08

마음 채움

나 자신을 뜨겁게 사랑해보자

10

생각한 난

아무도 나의 뜨거운 열정을 막을 순 없다!

12

데이터랩

뜨거운 사랑을 줘도 아깝지 않은 너에게

14

명사에게 묻다

여행작가 김남희

Section 대단한, 난

18

한난 통신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0

한난은 넷제로

한난, 분산형 집단에너지 플랫폼 '그린허브'를 만들다

22

온기를 만드는 사람들

기획처 법무지원부

Section 행복한, 우리

34

여기서 행복

삼송지사 운영부 최도현 차장 가족

38

듣는 서점

끌림

40

마음의 소리

금쪽아~ 아빠, 엄마의 마음은...

42

퇴근길 문화

평범한 물건 뒤에 숨은 탄생의 역사

46

가족의 식탁

상큼하고 쫄깃한 석류소스 찹스테이크

48

놀면 뭐하니

프랑스자수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50

KDHC 뉴스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기업 최초 'ESG 최우수기업' 선정 외

53

한난 SNS

한난 SNS 뉴스

54

독자와 함께

독자의견

55

한난 광고

한난, 세상을 녹색에너지로 채웁니다



우리 인생의 온도는 **뜨거움**

Text 이로서 Photo 정우철

돌아보면,
삶에는 저마다의 온도가 있습니다.
생애 주기마다, 어떤 순간마다,
나를 둘러싼 환경마다
그 온도는 천차만별일 수 있지요.
내 인생의 가장 뜨거운 순간을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나요?

미지근한 태도와
무감각한 일상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
그저 습관처럼
반복하는 하루하루...
차갑게 식은 커피 한 잔처럼
뜨거운 내면의 온도를 잊고
사는 건 아닐는지요.



누군가를 향한 위로가 '따뜻함'이라면,
나를 향한 응원은 '뜨거움'이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깊이 내재된 뜨거운 열정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나를 만나보세요.

움직이고, 도전하고, 달리고, 버티고.
새로운 목표를 삶의 이정표로 세워도 좋고,
잊고 살았던 꿈을 다시 품어도 좋습니다.
머뭇거렸던 도전을 시작하는 것도,
매일 마주하는 일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들을 뜨겁게 껴안아보세요.
'나'와 '오늘'을 잊고 사는 스스로에게
가슴 뛰는 뜨거움을 선사해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 때로는 뜨거움이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온기와 온기를 나누고 더하면 더욱 뜨거워집니다.
유독 마음이 헛헛해지는 찬바람 부는 계절,
그간 못다 한 마음속 말들을 내어 보이는 건 어떨까요?

진심을 담은 응원 한마디와 위로의 메시지는
누군가에게 세상을 열심히 살아갈 용기를 건네는
연금술이 되기도 합니다.
아픈 상처와 차가운 마음을 단번에 녹이는
용광로가 되기도 합니다.



조금 서툴더라도
차마 전하지 못한 메시지를 전달해보세요.
평범한 대화가 그리운 날,
‘말’은 누군가의 곁에서 ‘힘’이 될 테니까요.

너와 나, 우리.
온기를 더하는 뜨거움으로 엮인 공동체야 말로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열어붙은 내 안의 바다를 깨뜨리는 것 또한 뜨거움입니다.
평소 ‘요즘 내가 왜 이럴까? 이리다 말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마다 감정을 억누르고 삭히면서 살아온 것이지요.
감정을 계속해서 참다 보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안 좋은 감정을 쏟아내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감정에 서툰 나를 위해
그동안 껍썩 눌러 담고 참아왔던 감정을 알아차리고
가슴 깊숙한 곳에 자리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분출해보세요.
내 마음을 뜨겁게 안아주는 것이야말로
나를 치유하는 유익한 뜨거움이 될 테니까요.



한 해의 끝자락,
지난 1월에 새로운 시작과 함께 품었던
열정이 식지는 않았나요?
다시 삶의 온도를 한껏 올려
오늘도 내일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나아가보세요.
내게 주어진 삶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로맨스니까요. 

나 자신을 뜨겁게

사랑해보자

Text 나태주(시인) Illust 다나

나는 언제나 삶의 결핍에 주목한다. 결핍이 낳는 것이 그리움이고 그리움이 낳는 것이 사랑이다. 왜 겨울에 난로를 놓고 여름에 냉풍기를 트는가? 결핍 때문이다. 결핍은 우리에게 불편함과 불행감을 주기도 하지만 그 너머엔 또 다른 세상을 선물하기도 한다.

오늘의 나를 길러준 것은 무엇이었나? 결핍이다. 오래도록 깊은 결핍의 날들. 그런 마이너의 날들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고 오늘의 나로 변화시켜 주었다. 그런 점에서 결핍이야말로 또 다른 삶의 에너지라 할 수 있겠다.

해마다 1월이 되면 나는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집에서만 지내면서 책을 쓴다. 쓸만한 책이 없으면 그동안 미루었던 원고를 정리하거나 책을 읽거나 그린다. 그러니까 해마다 1월은 내가 진정한 나로 돌아가는 계절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는 시기이다.

제법 오래전의 일이다. 그 1월에 나는 두문불출하고 집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내가 그리는 그림이라야 별난 것이 아니다. 복사지에 그림 연필로 그리는 매우 단순한 그림, 소묘다. 주로 꽃이나 풀을 그리고 풍경을 그린다.

그런데 주변에 꽃이나 풀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어찌하나? 궁리 끝에 나는 컴퓨터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진 파일을 살폈다. 더러는 꽃 피는 계절에 찍어둔 꽃들의 사진이 있었다. 그 사진을 들여다보니 더욱 그림을 그리고 싶어졌다.

그렇게 나는 한동안 컴퓨터를 지켜보며 꽃 그림을 그리는 세월을 보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다. 어쩌서 눈이 내려 세상이 흑백으로 바뀌고 천지에 꽃이며 풀들이 사라진 계절에 풀꽃 그림을 문득 그려보고 싶었던 것일까?

그러하다. 오히려 꽃이나 풀들이 없고 날씨가 춥고 그래서 바로 그런 결핍 요인들이 나로 하여금 꽃과 풀들을 그리워하게 했고 또 풀꽃 그림을 그리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결핍이 또 다른 에너지란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다.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이들에게 결핍 상황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자기 것이 아닌 것이 많은데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것들이 아주 많은 때가 청춘 시절이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더욱더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젊은이들에게 나같이 나이 든 사람이 무슨 말을 해줄까? 앞날에 좋은 것들이 있으니 참고 기다리며 무작정 앞으로 직진하라고만 할까?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는 일. 나는 그들에게 한 가지 대안을 말해주고 싶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해보라고.

그것이 밥벌이와 무관한 것이라도 좋을 것이다. 우리 앞엔 대체로 두 가지의 일이 있다. 내가 잘하는 일이 그 하나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다시 하나다. 얼핏 사람들은 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쪽으로만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많이 다르다.

잘하는 일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 잘하는 일은 자신의 관심만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과도 관계가 있다. 잘하는 일을 하다 보면 남들 앞에서 늘 잘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또 남들 앞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므로 잘하는 일은 부담감을 주고 때로는 자존감에 손상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고, 자칫 실수나 모자란 점이 있다 해도 다시금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준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고 만족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나만 해도 시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다. 시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디까지나 시를 잘 쓰고 싶은 사람이다. 시를 조금 서툴게 썼다 해도 속상한 일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잘 써보고 싶은 소망을 준다. 그만큼 좋아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준다.

바야흐로 추운 겨울철이다. 날씨가 추기에 우리의 가슴은 더욱 따뜻해지고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미래의 우리 자신의 삶이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봄일 것이다. 인생의 봄, 자연의 봄을 가슴에 품고 나 자신을 뜨겁게 사랑해 보자. 🌸

나태주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에 당선으로 시인이 되어 50년 넘게 시를 쓰면서 살았다. 동시에 43년간 초등학교 교원으로도 살았다. 1973년 첫 시집 <대숲 아래서>를 낸 이래, 150여 권의 문학 서적을 출간했고 2007년 교직에서 정년퇴임을 한 뒤 공주문화원장과 한국시인협회 회장을 역임했고 2014년부터는 공주시의 도움으로 '나태주풀꽃문학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열정! 열정! 열정!

아무도 나의 뜨거운 열정을 막을 순 없다!



연말이 되면 갠스레 기분이 상승생생해집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괜히 쉬고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마 한 해가 저물고, 새해에 목표로 했던 것을
다 이루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섞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도 너무 아쉬움만 가득한 연말을 보내지 않길 바라봅니다.
지난 한 해, 분명 나는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올랐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혹 없더라도, 지난날 열정이 불타올랐던 나의 모습을 떠올려보며
한 해, 기분 좋게 마무리하세요! <따뜻·한난> 독자들처럼요.

Text 편집실

학창시절의
패기 변치 않기를!



독자 김동석 님

1970년대는 여러모로 어려운 시절이라 별다른 취미를 갖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취미를 갖고 싶었어요. '가장 희소성 있는 취미가 뭘까?' 고민했죠. 고민하다가 외국 화폐를 모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달리 방법이 없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외국 대사관을 통해 수집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이라, 대사관 번호를 알 수 없었어요. 시내 전화국의 전화번호부에서 어렵게 대사관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또 난관에 부딪혔어요. 편지를 쓰려니 빈약한 영어 실력으로는 단 한 줄도 쓸 수 없더군요.
대학생 형의 도움을 받아 힘들게 편지를 완성했습니다. 몇몇 대사관에 편지를 부치고 반신반의하며 기다렸어요. 보름쯤 지나 덴마크 대사관에서 보내온 동전 하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고요. 그렇게 시작해 모은 화폐가 지금은 150여 개국에 이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무모함으로 즐겼던 취미 생활 인데요. 학창 시절의 열정과 패기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열정, 앞으로도 변치 않았으면 해요.



열정 넘쳤던
그때를 생각하며

독자 박현 님

십여 년 전 아들이 육사 실기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온 아들이 공원에서 오래달리기와 멀리뛰기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친 아들에게 본보기가 되려고 "엄마가 먼저 1500m를 달릴 테니 네가 초시계를 들고 재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고등학교 때 체력 검증 후 제대로 달려본 적이 없었어요. '나는 엄마다'라는 생각으로 기를 쓰고 달렸지만, 합격선 안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이참에 아들과 함께 달려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아들 한 바퀴, 저 한 바퀴 보름 가까이 뛰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렸을 때는 결국 합격선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실력이 되더라고요. 그때 아들에게 "엄마도 육사에서 받아만 준다면 갈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농담을 했던 게 기억나네요. 아들은 육군 소령이 되었고, 지금의 저는 500m도 힘겹지만요.^^; 힘도, 꿈도, 열정도 넘쳤던 그때가 그리기도 합니다.

다시 일하고 싶다는
열정으로!

독자 권선영 님

결혼 후 아이를 키우느라 집에만 있었어요. 아이가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하고 나니 다시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고 싶다는 열망이 강하게 끓어올랐습니다. 그때 생각난 게 자격증 시험이었어요. 고3 이후 처음으로 잠을 설치며 직업상담사 자격증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까지 합격한 후 직장을 구했고, 열심히 배워가며 일하는 중입니다. 사회인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고 싶어 열정을 불태웠네요.^^



이웃을 보며
샘솟는 열정!

독자 김종훈 님

대학시절 친한 친구의 코드김(?)으로 봉사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독거 어르신 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어요. 다짐은 창대했지만, 점점 '리포트니 시험이니 바쁘데 봉사활동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주말에 다들 야유회도 가고, 데이트도 하는데 '이거 괜히 시작한 거 아닌가?', '그만한다고 할까?'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초심이 점점 희석되어가던 찰나, 작은 연탄난로에 웅기종기 모여서 추위를 달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마음을 잡았습니다.
잠시 흔들렸던 마음을 추스르고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 봉사활동에 임했죠. 덕분에 지금껏 잊고 살아왔던 소외된 우리의 이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엄동설한에 어르신들에게 온정이 전달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렸던 마음을 다잡고, 열정을 쏟았던 그때의 경험은 잊을 수가 없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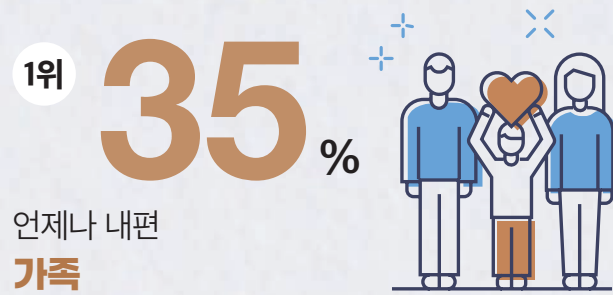


뜨거운 사랑을 줘도 아깝지 않은 너에게

테레사 수녀는 “강렬한 사랑은 판단하지 않는다.
주기만 할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인생에서 주기만 해도 좋은,
뜨거운 사랑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궁금증이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따뜻:한난> 독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뜨거운 사랑을 주고 싶은 대상이 있나요?
그렇다면 누구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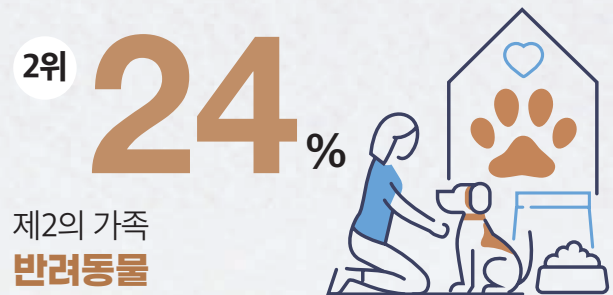
Text 편집실

Data 한국지역난방공사 웹진 <따뜻:한난> 설문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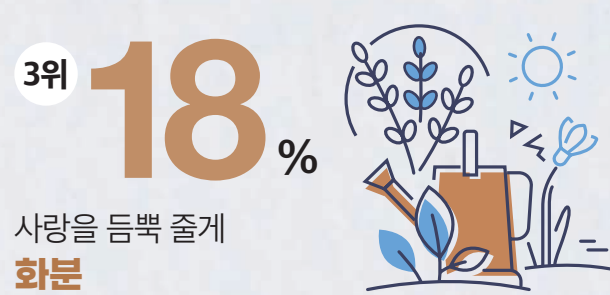
언제나 내편
가족

예상했던 대로 1위를 차지한 가족. 가족이라는 존재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따뜻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가족에게 뜨거운 사랑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답변한 독자들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부모의 내리사랑이 느껴지는 답변이 있어 소개한다.
“아들에게 제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몰랐는데, 낳고 기르다 보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역시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이 독자처럼, 연말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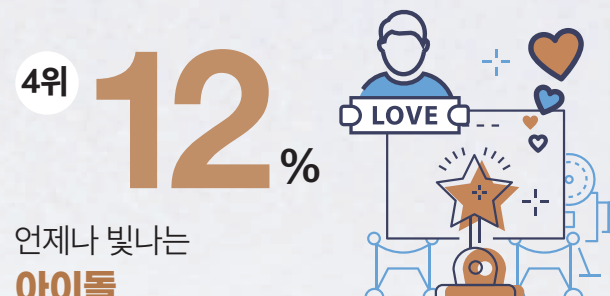
제2의 가족
반려동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에게 반려동물은 제2의 가족과 같다고 한다. 말을 못 하지만,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교감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에게 사랑을 듬뿍 줘도 아깝지가 않다는 게 이들의 전언. 귀여운 애교는 물론이거니와, 외출 후 돌아오면 누구보다도 나를 반겨주는 반려동물 덕분에 삶이 즐겁다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한 독자는, “우리집 강아지 이름은 구름인데요. 정말 귀여워요. 제 생명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산책 중에 큰 개가 저한테 오는데, 구름이가 먼저 그 개를 향해 짖더라고요. 다행히 견주가 와서 사과하며 데려갔죠. 구름이가 아니었으면 정말 아찔했ைய요. 구름아 고마워!”라고 말했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화 그 이상의 기쁨을 주는 반려동물은 독자들의 삶에 꽤 깊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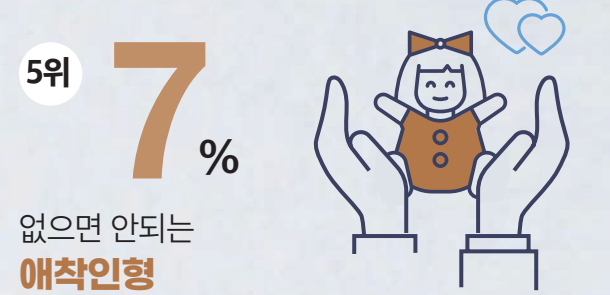
사랑을 듬뿍 줄게
화분

좋은 기운으로 힐링하는 효과를 주는 식물 테라피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우울증이 심하게 왔었는데요. 식물 테라피를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식물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걸 보니 가라앉았던 제 마음도 되살아나더라고요. 작은 화분 덕분에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독자의 실제 후기다. 혹시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슬픔에 빠진 누군가가 있다면 조심스럽게 식물을 기르는 것을 추천해 주고 싶다. 뜨거운 사랑으로 식물을 기르다 보면,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치유해 주는 아름다운 식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빛나는
아이돌

어떤 분야, 사람 또는 취미에 빠져있는 사람을 흔히 ‘덕후’라고 부른다. 옛날이야 덕후의 의미가 좋지 않았지만, 요즘 시대의 덕후는 다르다. 한 분야에 빠져있는 모습은 집중력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기도 한다. 아이돌 가수에 빠져있다는 독자의 사연을 들었다. 아이돌 가수는 자신도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일깨워 주는 존재라고. 무료한 삶, 무감각해지는 감정에 따뜻함을 불어 넣어주는 땀감 같다고 한다.
혹시 주변의 누군가가 아이돌 가수에 빠져있다고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말자. 누군가에게는 삶의 낙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반대로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다면, 아이돌 가수나 연예인에 빠져 덕후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 남들이 가지지 않는 취미도 좋다. 어떤 대상 하나에 빠져 있다 보면 지겹던 일상도 새로운 즐거움으로 다가올 테니.



없으면 안되는
애착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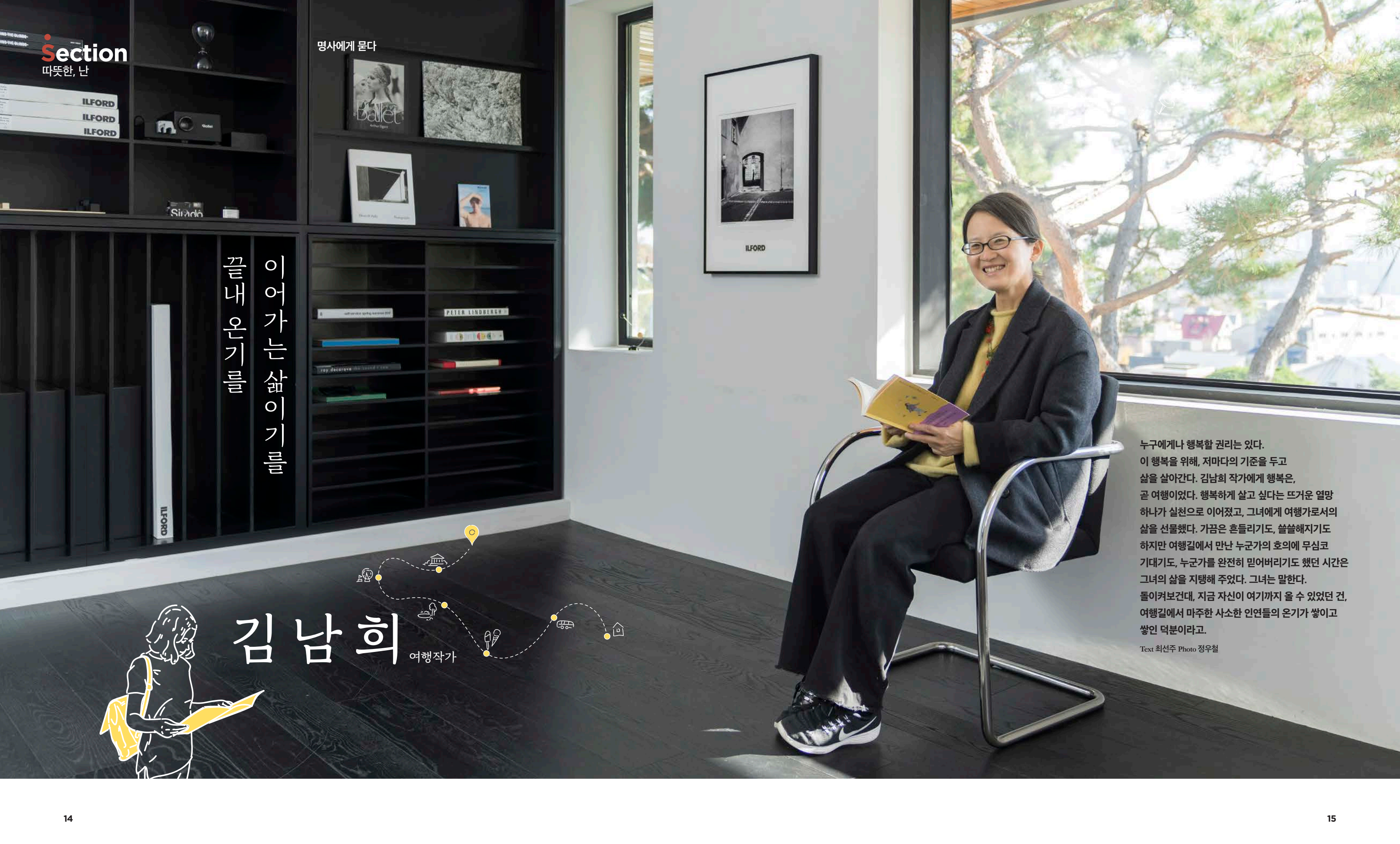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었다. 뜨거운 사랑을 줘도 아깝지 않은 대상이, 애착인형이라니! 애착인형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올바른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형이다.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이 애착인형을 친구처럼 대하며 애착관계를 형성한다.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지만. 그렇기에 ‘성인이 된 지금, 뜨거운 사랑을 줘도 아깝지 않은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애착인형이라는 답변이 나올지 몰랐다. 하지만 그 사연을 들어보니 이해가 간다. “제 애착인형 토토에게 뜨거운 사랑을 주고 싶어요. 세월이 흐른 만큼 외모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제 눈에는 귀엽고 사랑스럽거든요. 어릴 적부터 늘 가까이 함께 웃고 울며, 서로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최고의 단짝 친구 토토야 사랑해!” 어른이 된 지금 동심이 가득했던 그 시절이 생각나는 답변이었다.



뜨거운 사랑을 나에게!
기타

요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주변에 쉽게 휩쓸리고, 상처받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사람들에게 응원의 말을 전하고 싶다. 나 자신에게 뜨거운 사랑을 주자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이 아닌 나라고 말이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생기는 법! 연말, 올 한 해도 수고한 나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LOVE you



이어가는 삶이기를
끝내 온기를

김남희

여행작가

누구에게나 행복할 권리는 있다.
이 행복을 위해, 저마다의 기준을 두고
삶을 살아간다. 김남희 작가에게 행복은,
곧 여행이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
하나가 실천으로 이어졌고, 그녀에게 여행가로서의
삶을 선물했다. 가끔은 흔들리기도, 쓸쓸해지기도
하지만 여행길에서 만난 누군가의 호의에 무심코
기대기도, 누군가를 완전히 믿어버리기도 했던 시간은
그녀의 삶을 지탱해 주었다. 그녀는 말한다.
돌이켜보면, 지금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여행길에서 마주한 사소한 인연들의 온기가 쌓이고
쌓인 덕분이라고.

Text 최선주 Photo 정우철



돌이켜보면 이토록
오래 여행을 해왔는데도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 있는 건 그런 사소한 것들이다.

타인의 호의에 무심코 기대었던 순간.
누군가를 완전히 믿어버렸던 찰나
잠시 벌어진 그 틈 사이로 스며든 번개 같은
공감과 소통.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내 삶을 이루었다.

-<호의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中

Q.작가님 근황이 궁금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A.지난 11월에는 방과후 산책단(책임 여행을 꿈꾸며 만든 여성 전용 여행단)과 교토 여행을 마쳤어요. 지금은 일간지 두 곳에 글을 연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Q.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사표를 내고 여행을 시작한 게 여행가로서의 삶을 사는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직장인으로서 참고 있는 행동인 것 같기도 하고요.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퇴사를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해요. 그 삶이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무언가는 늘 여행이었더라고요.

Q.퇴사 후, 여행을 통해 얻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A.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들여다봄으로써,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방향 같은 걸 찾고 싶었어요. 한국에서는 삶의 모범답안이 정해져있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그 길밖에 없는지,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 찾아보고 싶었어요.

Q.어느 인터뷰에서 “지도를 잘 읽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았습니다. 여행을 할 때는 길을 찾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작가님의 이런 답변이 새롭더라고요. 여행할 때는 정확히 계획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여행하면서 낯선 곳을 술하게 헤매셨을 것 같은데, 헤매는 과정이 주는 즐거움이나 깨달음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A.지도는 저에게 아랍어로 쓰인 연애편지 같은 거죠. 들여다보면 설레는데 읽을 수 없어서 곤혹스러우니까요. 스마트폰이 생겨나기 전까

지는 길에서 술하게 헤매고 다녔지요. 하지만 그래서 더 재미있는 여행을 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철저히 타인의 친절에 기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좋은 경험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Q.작가님께서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배낭여행자로 살고 싶다”라고 하신 말씀이 인상 깊습니다. 여행 중에서도 배낭여행의 매력이 될까요? 가보셨던 곳 중에 또 방문하고 싶을 만큼 좋았던 여행지도 추천해 주세요.

A.배낭여행의 매력은 많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낭 하나에 넣어서 길을 떠날 수 있다는 것, 두 손이 자유롭다는 것, 자유롭게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전 무거운 배낭을 너무 오래 메고 다닌 덕분에 마흔 초반에 직업병이라고 해야 할까요? '퇴행성 디스크'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벼운 배낭을 메고 다니거나,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여행을 병행하고 있어요.

또 가고 싶을 만큼 좋은 여행지를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하나만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여행하는 모든 나라와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고, 모든 나라를 다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늘 “지금 여행하고 있는 나라가 제일 좋다”라고 대답을 하곤 해요. 가장 최근에 멀리 다녀온 곳이 루마니아였으니 지금은 루마니아가 가장 가고 싶네요. 사실 내년에 산책단을 꾸려서 다시 갈 계획이 기도 하고요.

Q.인터뷰를 하는 가장 최근까지도 해외에 머무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술하게 헤매고, 길을 잃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떠나는 뜨거운 열정은 어디서 비롯되는지 궁금합니다.

A.그건 제가 여행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많은 것을 포기하더라도 여행만은 끝내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제게 절실하기 때문이죠. 저

는 사실 여행 말고는, 다른 하고 싶은 일도 별로 없거든요. ‘여행을 다니지 못하게 되면, 이런 것을 해야지’하는 바람 몇 가지는 있지만, 다리에 힘이 남아있는 한 계속 여행을 다니고 싶어요.

Q.전례 없는 코로나19 탓에 여행길이 꽉 막혔었죠. 삶의 대부분을 여행으로 보내고 계신 작가님게도 답답한 날들이었을 것 같아요.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어떻게 극복 중인지 궁금합니다.

A.코로나19 시기에 생계가 막막해져서 여러 가지 일을 시도했죠. 여성 손님만 받는 에어비앤비라든가, 여행 글쓰기를 가르치는 방과후 글쓰기 교실, 소규모 여성 전용 여행 프로그램인 방과후 산책단 등을 꾸려서 그야말로 'n잡러'가 되었어요. 에어비앤비에는 20~30대 여성들이 주로 오고, 방과후 산책단에는 40~60대 여성들이 주로 와요. 지난 2년간 해외여행은 거의 못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여행한 셈이 되었죠. 힘겨웠지만 사실은 정말 감사할 일이 많았던 시기였어요.

Q.코로나19 시기에 쓰신 <호의는 거절하지 않겠습니다>에는 주변을 돌아보고, 관찰한 이야기를 담으셨는데요. 여행과는 또 다른 재미를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잊지 못할 에피소드나 특별했던 경험을 들려주세요.

A.앉은 자리에서 여행하는 기분이었어요. 에어비앤비에 손님으로 온 20대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를 제가 한 방과후 글쓰기 수업으로 보냈고, 그 어머니가 방과후 산책단에도 오셔서 두 번의 해외여행을 같이 하는 인연으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아끼는 후배를 그 따님과 소개팅을 시켜드렸는데, 후배가 차여서 아쉬워하는 일도 있었어요.

Q.여행하면서 읽으면 좋을 책 한 권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A.제가 책 추천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취향도 다르고, 독서 능력도 다르고, 경험치도 달라서 읽어낼 수 있는 책을 가늠하기 어렵거든요. 음... 그래도 최근에 읽은 책들 중에서 몇 권 골라본다면 <숫바일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의 역사> 정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추천 이유는 읽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Q.여행만큼이나 글을 쓰는 것도 작가님의 즐거움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 글쓰기란 어떤 의미인가요?

A.사실 제게 글쓰기는 즐겁다기보다는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제가 그래도 책은 꾸준히 읽어와서 좋은 글을 보는 눈은 있거든요. 그런데 제 글은 늘 그 기준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쓸 때마다 벽에 머리를 박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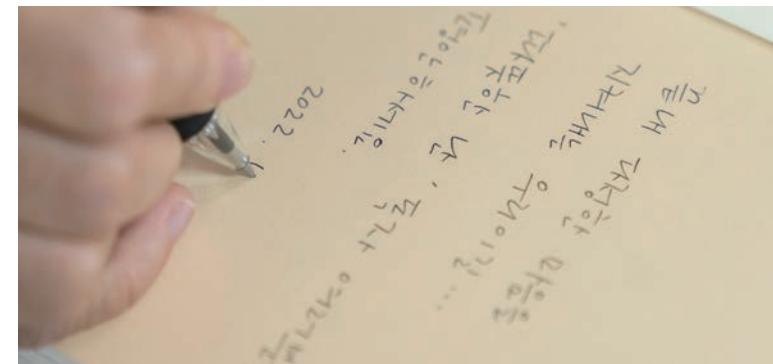
싫어지죠. 그래도 자기 응시, 타인과 공감하는 즐거움이 있어서 포기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계속 괴로워하면서 쓰는 거죠.^^

Q.조심스럽지만 일상의 흐름이 ‘위드 코로나’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중인 일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A.내년 1월에 방과후 산책단과 함께 남미에 가고요. 그다음은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점점 미래를 계획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계획을 해도 늘 달라지거든요. 확실한 점이 하나 있다면 내년에는 집에 있는 날들이 적을 것 같다는 것? 혼자 가고픈 여행도 많고, 산책단과 같이 가고픈 여행들도 있어서요.

Q.연말이 다가옵니다. <따뜻:한난> 독자들이 뜨겁고, 찬란하게 2022년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응원이나 조언, 위로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세상이 흘러가는 속도나 방향과 상관없이 자기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그렇게 살면 좀 외롭잖아요? ㅎㅎ 무엇보다 독자 여러분 모두 더는 누군가를 잃지 않고, 누구와도 이별하지 않고, 다정한 이들과 함께인 날들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한남도 함께합니다

안전한국훈련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범국가적 재난대응 훈련이다. 특히 2022년 안전한국훈련은 2019년 이후, 3년 만에 대면 현장훈련으로 실시해 주목을 받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동참했다.

Text 편집실 Data 한국지역난방공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란

태풍, 호우, 지진, 화재 등의 재난은 미리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온다. 갑자기 찾아온 재난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데, 재난에 대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는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안전 훈련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재난대응 안전한 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체계적인 훈련 기획·설계를 통해 원활한 재난대비 훈련 수행 및 훈련 목표를 달성하고, 구성원의 재난대응 임무와 역할 숙달 및 협업 기능별 작동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재난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임무와 역할 숙지,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계획 작성을 통한 실질적 대응태세 점검, 국민체험단 운영을 통한 국민안전의식 향상 및 공감대 형성이 훈련의 중점 사항이다.

한난, 국민안전 책임진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공기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함께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여러 유형의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재난대응 훈련 경험과 위기 상황 매뉴얼 등을 토대로 훈련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현장감 있는 훈련을 실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훈련 3일차인 지난 11월 16일에는 한난 동탄지사에서 화성시, 화성소방서, 화성동탄경찰서, 화성보건소, 군부대, 한국가스공사, 한전KPS 등 총 12개 유관기관과 인근 주민이 직접 참여해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동탄지사에서 시행된 합동훈련은 지진에 의한 열원시설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열수송관 고온수 누출 등 복합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해 한난 및 참여기관들이 재난 상황에 따른 단계별 합동 대응 훈련 방식으로 전개되어 주목을 받았다. 📌

“앞으로도 한난은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내실 있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재난사고 사전 예방에 적극 힘쓸 계획이다.”

Safety



한난, 분산형 집단에너지 플랫폼 ‘그린허브’를 만들다

탄소중립 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분산에너지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집단에너지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탄소중립 도시 구축을 위해 이 두 에너지를 융합하는 도심형 에너지공급 모델,

분산형 집단에너지 플랫폼으로 ‘그린허브’를 개발했다.

Data 한국지역난방공사

무탄소 열에너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전기에너지뿐만 아니라 열에너지 부문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높아야 한다. 전기에너지에 비해 지역적·수송적 한계가 있는 열에너지는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무탄소 열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은 지역난방 열수송망을 이용하여 도심의 폐열과 신재생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4세대 지역난방’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한난에서는 ‘4세대 지역난방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였다. 4세대 지역난방의 개념은 공급온도를 낮춰 저온(70℃ 이하)으로 열을 공급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해 열수요 변화가 크고, 공동주택 생활 비율과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바로 국내에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난에서는 ‘무탄소 열원 확대’와 국내 환경에 적합한 ‘스마트 열그리드’ 구성을 위해 태양에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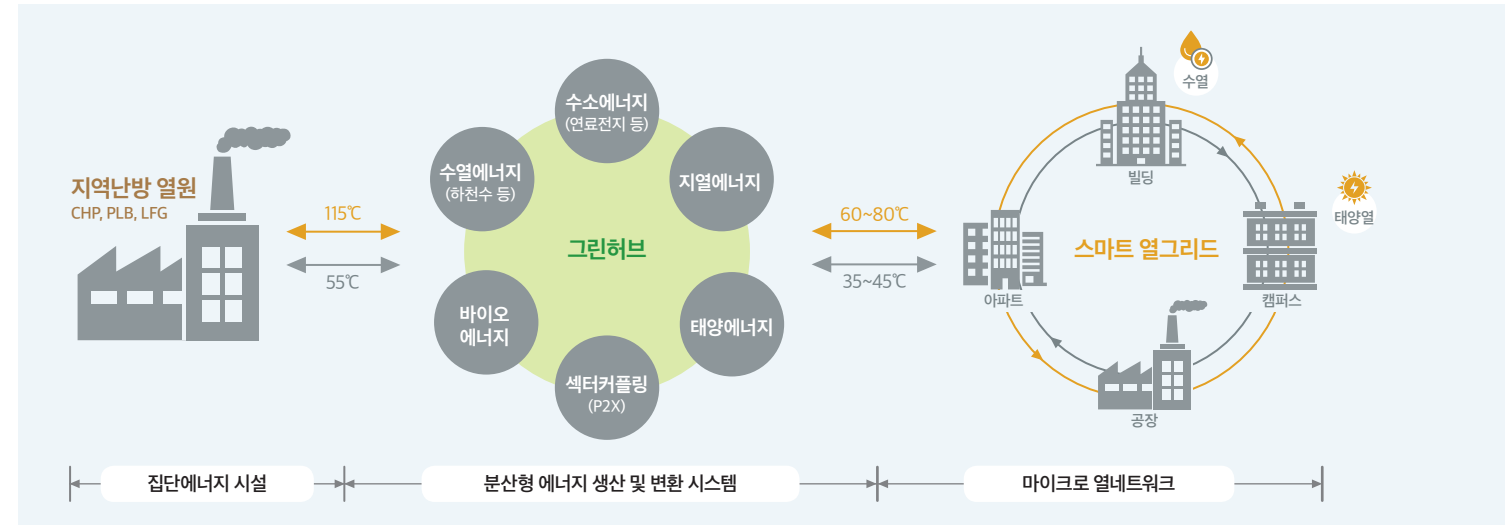
District Energy Platform



<미래개발원 그린허브 전경>



<미래개발원 연료전지 전경>



<분산형 집단에너지 플랫폼 운영 원리>

지, 수소에너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열원 활용을 가능하게 해주며 냉난방을 위한 열품질을 높여주는 시스템으로 분산형 집단에너지를 정의하고 시스템 구현을 위한 플랫폼인 ‘그린허브’를 개발하였다.

한난이 개발한 분산형 집단에너지 플랫폼 ‘그린허브’

한난은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집단에너지와 연계된 분산에너지(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등)의 비중을 높이는 ‘분산형 집단에너지 플랫폼’인 ‘그린허브’를 구축하여 실증하고 기술을 검증했다.

‘그린허브’란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용 환경에 맞춰 에너지 품질 조절을 통해 사용자에게 에너지를 적절히 수송·분배하는 차세대 에너지 플랫폼이다. 실증을 추진한 한난 미래개발원 그린허브는 연료전지와 태양광으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여, 지역 내에 공급하고 있다. 그린허브 내에서는 온도차·압력차 발전을 통해 소내 소비전력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에게 공급되는 지역난방수는 외기온도와 열사용량에 맞춰 공급온도를 조절하고 있으며, 50년 이상 사용 가능한 플렉시블 열수송관과 상시 온도측정이 가능한 광케이블 센서를 이용하여 열을 수송하고 누수를 감지하고 있다.

‘그린허브’ 실증을 통해 한난 미래개발원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9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였는데, 이를 화석연료와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연간 61TOE*, 745TC**에 해당한다.

*TOE 석유환산톤(Ton Of oil Equivalent), 다양한 에너지원의 발열량을 석유의 발열량으로 환산한 단위

**TC 탄소톤(Tonnes of Carbon) 온실기체의 용량 단위

‘그린허브’로 이뤄낸 탄소중립

한난은 앞으로도 ‘그린허브’를 활용한 연구에 매진할 계획이다. 분산형 집단에너지 보급을 위해 기술기준을 정립하고, 화학열저장을 이용한 분산형 축열시스템 기술도 확보해 잉여 에너지를 장기간 저장·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 한난은 저탄소 구현으로 따뜻하고 깨끗한 세상을 향해 오늘도 매진하고 있다. 🌱

“한난은 앞으로도 ‘그린허브’를 활용한 연구에 매진할 계획이다.

분산형 집단에너지 보급을 위해 기술기준을 정립하고, 화학열저장을 이용한 분산형 축열시스템 기술도 확보해 잉여 에너지를 장기간 저장·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분산형 집단에너지 플랫폼 시설

규모	• 그린허브 건축물(약 100평)
설비 현황	• 연료전지 발전(105kW), 배열(0.1Gcal/h) • 주차장 태양광 발전(216kW) • 온도차 발전(15kW) & 압력차 발전(5kW) • 지역난방 컴팩트 열교환 유닛(1Gcal/h) • 중온수 고효율 2단 흡수식냉동기(80RT) • 플렉시블 열수송관 및 누수감지 광케이블 등

균형 잡힌 시각과 집요함으로 ‘한난’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다

기획처 법무지원부

어느 회사든 법무 관련 부는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한다.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튼튼한 벽을 쌓는 동시에 다른 부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도 한다. 단순히 자문과 조언을 넘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건강한 성장에 대한 책임감으로 나아가는 법무지원부를 만나본다.

Text 김주희 Photo 정우철 Video 최의인

보석 같은 전문 역량으로 가득한 ‘법물섬’

이름에서부터 그 역할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법무지원부는 공사 업무의 근간이 되는 사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시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와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다양한 범위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계희 부장을 리더로 원승연 사내변호사, 김지연 사내변호사가 법률자문과 소송 수행을 담당한다. 그리고 정영수 팀장과 노경배 대리가 사구 및 소송 업무를, 이정혜 차장과 박승열 주임이 법률자문 영역 업무를 도맡는다.

“법률자문 및 주요사업 법률검토를 통한 리스크 예방을 비롯해 전략적 소송 수행을 통한 공사 재무적 법적 리스크 감소, 사구의 법적 정합성 제고,

체계 정비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회사 규모가 커지고 업무 또한 다양화되면서 법률분쟁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우리 부의 존재 가치가 다방면에 걸쳐 커지고 있습니다.”

박승열 주임은 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지원부는 최근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주요 소송들을 승소로 이끌고 있으며 매년 200여 건의 법률자문을 통해 회사의 법률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중이다. 또한 당면한 과제에 국한하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법률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

원승연 사내변호사는 부를 ‘법물섬’이라고 칭하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왼쪽부터

원승연 사내 변호사
정영수 팀장
노경배 대리
이정혜 차장
박승열 주임
김계희 부장
김지연 사내 변호사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온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취재 현장을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부원들 사이에서는 법률섬(법무지원부+보물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부원들과 함께 길을 걷다 고물상 차량에 ‘고물섬’이라 쓰여진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아 만든 애칭인데요. 임직원 여러분이 우리 부에 차곡차곡 축적된 법무지식과 정보를 잘 활용하길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혁신과 열정의 이상적 발현

법무지원부는 올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법무정보시스템 재구축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자문 및 소송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면서 사규 검색의 수준에 머물렀던 시스템의 통합 검색 기능을 향상시켰다. 또한 2018년부터 이어진 광주전남지사 SRF발전소 가동 관련 행정소송 대부분을 승소로 이끌면서 4년 동안 가동하지 못했던 SRF발전소를 정상 가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재무·비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상반기 정기포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노경배 대리는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는 부의 역량을 여럿 손꼽았다. “놓치는 것 하나 없는 꼼꼼함, 사안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입체적 시각, 그리고 모든 업무의 밑바탕이 되는 경청입니다. 법률지원의 니즈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잘 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법무업무는 단기간에 완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물고 늘어지는 집요함과 근성도 필수이지요”라고 밝혔다.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평소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법적 분쟁상황을

법무지원부는 다소 딱딱한 업무를 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대나무숲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임직원이 법적 관련 고충을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하고 대화를 하기도 한다. ‘틀리다’와 ‘다르다’의 차이를 인정하되, 논리를 펼치고 치열하게 검토해 건설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모습은 마치 글레디에이터 같은 모습으로 발현된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 중 신호등이 점멸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A가 신호등이 고장났다고 하자 B가 보행 신호는 들어오므로 완전히 고장난 건 아니기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호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했죠. C는 신호등을 대리해 A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수임하겠다고 하자 D는 신호등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당사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부원들이 법적 마인드를 되살려 유머러스하게 상황을 전개하는 능력을 갖췄지요”

정영수 팀장의 말에 김지연 사내변호사는 “그래서일까요. 평소 장르물이나 법정 드라마를 잘 못 봅니다. 드라마를 드라마로 보지 않고 법적 오류를 발견하는 등 분석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이것 또한 직업병이 아닐까요?(웃음)”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최고의 파트너이자 소울 메이트

업무나 논쟁에서 냉정함을 잃지 않는다면 부원들이 함께할 때는 훈훈한 온기가 썩는다. 나누고 싶은 것이 많아 모이면 이야기가 끝도 없이 이어져 언제나 시끌벅적한 부다. 그만큼 공감대 형성도 잘 되고 이야기도 잘 통하는 것. 이정혜 차장은 부원들이 서로에게 ‘소울 메이트’가 되어준다면 애정을 드러냈다.

“업무뿐만 아니라 취미도 공유합니다. 일로 엮인 관계만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으로 엮인 관계로 정의하고 싶네요(웃음). 뮤지컬 관람, 드라마와 배우 이야기, 여행지, 자녀 양육 등등 아주 폭넓은 주제로 소통하며 팀워크를 다지죠.”

법무지원부의 활약은 계속된다. 지금처럼 부원들이 모든 동료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내 일과 네 일에 대한 경계를 구분하되 시너지를 발현하는 협업을 이어갈 것이다. 김계희 부장이 다시금 법무지원부의 바람직한 역할과 행보를 되짚는다.

“법무지원부는 다소 딱딱한 업무를 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대나무숲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임직원이 법적 관련 고충을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원들이 각자 맡은 업무를 훌륭히 소화하면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모습을 유지하며 즐거운 회사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잘 이끌겠습니다.” 🌸



법무지원부의 즐거운 한나 어워드

한나 어워드는 매호 <따뜻·한나>에 소개된 부를 위해 마련된 작은 시상식입니다. 부 자체 설문문을 통해 선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선물을 드립니다.



열정 넘치는 열정맨 **노경배 대리**

365일 발에 불나게 열정적으로!
‘양말&달력’

법무지원부의
젊음을 담당하는 만큼
매사에 열정이
넘칩니다!



커피 향처럼 은은한 **이정혜 차장**

커피와 차로 일상에 향긋함을 더하세요.
‘텀블러’

늘 환한 미소와 차분한
말투로 커피 한 잔
같은 여유를 선사하는
존재입니다.



이 구역 면역왕! **박승열 주임**

앞으로도 면역력을 지키세요~
‘마스크’

점심시간에 꾸준히
수영을 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24시간 공백 없는 열 공급 안정적인 주거 서비스를 완성하다

산내마을NH행복주택 1단지&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시사

주택이 존재하는 목적은 '삶'의 영위다. 365일 24시간 매 순간 입주민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요소가 원활히 운영되어야 한다. 경기도 파주시 운정지구에 자리한 산내마을NH행복주택 1단지(이하 산내마을 1단지) 관리사무소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시사는 입주민에게 이상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빈틈없는 지역난방 열 공급을 완성하는 협력 스토리에 귀 기울여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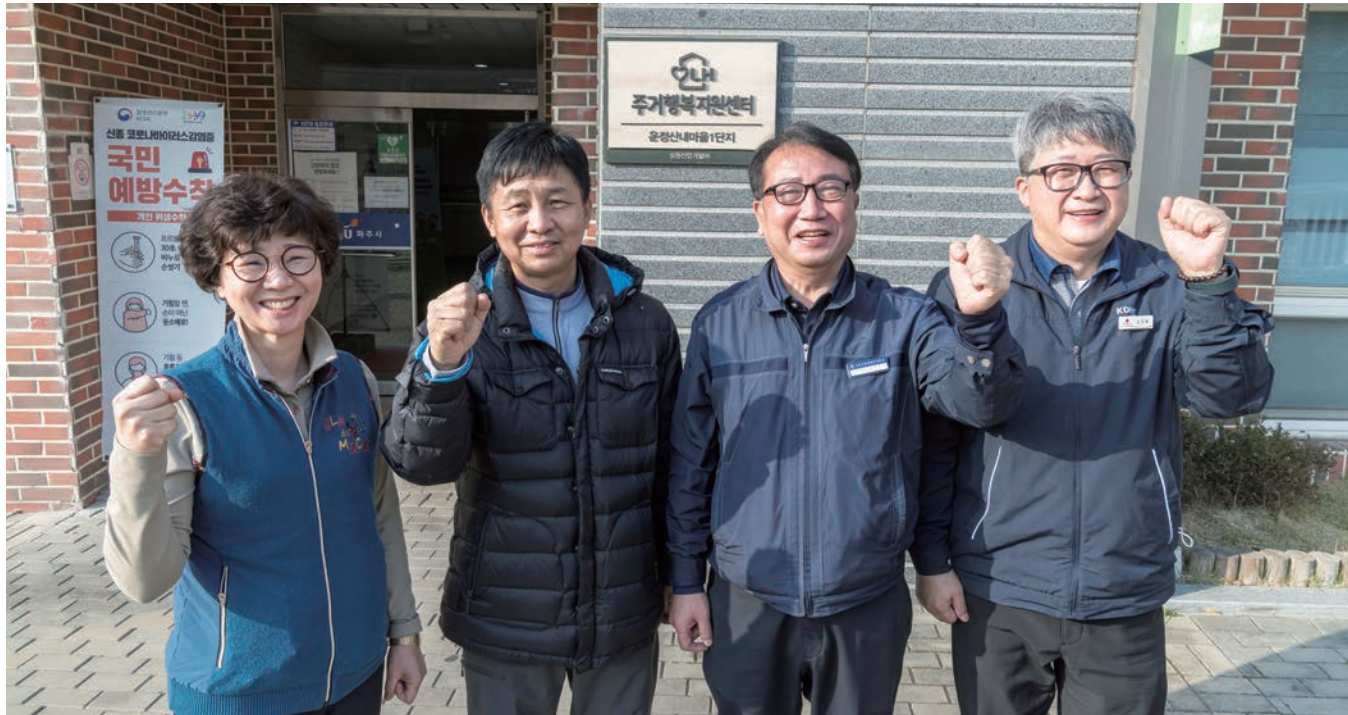
Text 김주희 Photo 정우철

STABLE RESIDENTIAL SERVICES

산내마을NH행복주택 1단지 정보

세대 수	8개 동 1,700세대
입주 연도	2017년
열 사용량 2021년 기준	4,358Gcal/h
단지 내 시설	청년카페 1개소, 도서관 1개소 코인 세탁실 1개소 등 다양한 커뮤니티 및 공동시설





왼쪽부터 산내마을NH행복주택 1단지 관리사무소 장인숙 관리과장, 김형동 관리소장, 김준모 시설과장, 파주시사 운영부 김진록 팀장

도서관부터 취업 지원까지, 입주민 맞춤형 공동시설

2017년 입주를 시작한 산내마을 1단지의 입주민은 청년과 신혼부부, 노년층으로 이뤄졌다. 11~25층 규모의 101~108동까지 8개 동 전용면적 16~36㎡형 총 1,700세대로 구성된 지역난방 방식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다. 주택형에 따라 대학생과 청년 계층, 신혼부부와 고령자, 주거약자와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한다. 입주민 대다수가 1인 가구와 청년층으로 이뤄진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시설이 곳곳에 자리한 것이 특징. 장인숙 관리과장은 집 밖으로 멀리 나가지 않아도 단지 내에서 다양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입주민들이 학습과 휴식,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카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을 대여해주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이곳에서 비누 및 향수, 화장품, 화분, 소품 만들기 클래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소통의 장을 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지 내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코인 세탁실과 청년 중심의 취업, 창업을 지원하는 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노년층 입주민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을 선보이는가 하면 물품을 공유하는 나눔 냉장고와 입주민용 PC와 프린터기를 갖춘 우리동네 온돌방을 운영한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반찬 나눔 서비스, 이동 빨래 서비스 그리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를 위

지역난방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에서
파주시사의 관심이 큰 도움이 됩니다.
파주시사의 협조가 입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난방에 대한 직원 교육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길 바랍니다.

산내마을 1단지 장인숙 관리과장, 김형동 관리소장, 김준모 시설과장



산내마을 1단지는 근거리에 있다 보니
더욱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슬기롭게
협업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안정적인
지역난방 열 공급을 이어가겠습니다.

파주시사 운영부 김진록 팀장, 류호석 과장



한 피자 나눔 서비스 등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주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넘어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이끄는 기회를 제공하며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이다.

입주민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산내마을 1단지는 입주 초기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시사와 함께하며 안정적인 열 공급을 이끌었다. 파주시사는 기계실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역난방 설비를 비롯해 점검 방법, 관리 노하우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실무자들이 설비를 다루는 데 상황별 매뉴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또한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의 1인 가구가 입주민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벗어나 생애 처음으로 독립된 공간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난방 설비는 낯설게 다가오는 터. 관리사무소는 난방, 급탕 등 집단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매뉴얼을 배포해야 했는데, 파주시사와 협력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완성할 수 있었다. 김형동 관리소장은 매 순간 파주시사의 존재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우리 집 주변에 경찰서나 소방서가 있으면 심적으로 든든하잖아요? 5분 거리에 위치한 파주시사 역시 존재만으로 힘이 됩니다. 특히 주거 공간은 365일 24시간 안정적인 지역난방 열 공급이 매우 중요하죠.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주는 것은 물론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해주고요. 우리 단지가 주거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정적인 열 공급은 지속적인 관리에서 비롯되는 법. 김준모 시설과장은 매일 네 차례 설비 점검을 진행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 중이다. 산내마을 1단지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설비 유지 관리, 민원 관리 등을 잘 이끌어온 결과, 지난 2020년과 2021년 각각 우수 열 사용자 단지 포상과 개인 포상을 수상했다. 파주시사 운영부 김진록 팀장은 관리사무소에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

“서로의 휴대폰 번호로 연락할 만큼 자주 소통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분들 모두 지역난방 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 더욱 세심하게 설비를 운영하지요. 특히 우수 열 사용자 개인 포상을 수상한 장인숙 관리과장님은 전문 지식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성 특유의 꼼꼼함을 발휘하며 현장을 원활히 이끌어 줍니다.”

‘함께 가면 더 멀리, 더 오래갈 수 있다’는 명제를 잘 알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시사와 산내마을 1단지의 동행은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도 이웃과 가족처럼 끈끈한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파주시사 운영부 류호석 과장의 각오에 장인숙 관리과장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협업을 이어가자고 화답했다. 🍷

올겨울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 다이어트 10

전례 없는 에너지 비상상황. 올겨울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에너지 다이어트로 에너지 10% 이상 절감목표를 달성하고, 겨울철 에너지절약 5대 실천 강령을 준수하기로 다짐했다. 에너지 다이어트는 단순히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아닌 우리 경제의 생존을 좌우하는 절실한 과제다.

Text 임혜경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

정부가 에너지 다이어트에 본격 돌입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올겨울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량을 평균 대비 10%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6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인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 행사를 개최했다.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은 동절기 최근 3개년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10%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으로, 이날 참석한 공공기관은 에너지 10% 이상 절감목표 달성,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 강령 준수, 전 국민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낭독하고 서명했다.

에너지 위기대응 특별대책반(TF) 운영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을 선도하고자 '에너지 위기대응 특별대책반(TF)'을 운영해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건물 에너지 사용을 10% 절감하는 정부의 '에너지 다이어트 10' 활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난방온도 제한과 조명 소등 등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강령'을 실천 중이다. 또한 지역난방 사용자의 노후·고장 설비 교체사업 지원과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설비운영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년 3월까지 동절기 기간에 열 21천Gcal, 전력 341MWh의 에너지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유럽 주요국의 동절기 대비 에너지 절감 노력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주요국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에너지 사용량을 2024년까지 10%, 2050년까지 40% 감축을 목표로 '에너지 절약 대책(Plan of Sobriety Energy)'을 발표했다. 이는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 규모의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TV 광고, SNS 등을 통해 대국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행 중이다.

건물은 난방온도 19℃로 제한하고, 온도와 조명을 자동으로 제어할 스마트 기기를 설치 중이다. 또한 불필요한 출장을 자제하고, 운송수단을 자동차나 비행기보다 기차 등의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독일

독일은 동절기 가스 소비 20% 감축을 목표로 중단기 대책을 법제화하고, 정부 주도로 범국민 대상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시행 중이다.

가정에서는 세입자의 계약상 최저 온도 유지 의무를 유예하고, 가스·전기를 사용하는 수영장 난방을 금지했다. 공공건물의 실내 난방온도는 19℃를 지키고, 복도와 로비, 창고 등에도 난방을 금지했다.

정부 주도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진행 중인데, 절수형 샤워기 사용, 샤워는 5분 내, 냉장고 온도 7℃, 식기세척기 사용 등 실생활 에너지 절약 방법을 공개해 홍보 중이다.



영국

영국은 Ofgem, NESTA, 민간 전력사 등에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영국 전력·가스시장 규제기관인 Office of Gas & Electricity Market은 소셜미디어, Citizen Advice 등 소비자 단체와 함께 에너지 절약 방법을 소개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발족했다. 현재 Ofgem은 온도 60℃, 에너지 절약형 전구 사용 권고, 외출 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 방법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 중이다.

NESTA는 보일러 설정 온도를 60℃로 낮추면 가스 소비량이 약 9% 감소되고, 일반 가정의 경우 요금이 절약되는 보일러 절약 챌린지 캠페인을 시행 중이다.

에너지 절감 5대 실천 강령

1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온도를 17℃ 이하로 유지

*학교, 도서관, 의료시설, 아동·노인복지시설, 대중교통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적정온도를 자율적으로 관리하여 불편 최소화

2

권역별로 전력피크 시간대에는 난방기 가동 중지

경기·세종 권역	서울·인천·강원 권역	경상·제주 권역	충청·전라 권역
09:00~ 09:30	09:30~ 10:00	16:00~ 16:30	16:30~ 17:00

*(경상)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충청)대전·충북·충남, (전라)광주·전북·전남

3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 중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개인 난방기를 사용할 때 절감효과가 더 큰 경우, 임산부, 장애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

4

옥외광고물·건축물·조형물·문화재 등의 장식조명은 심야에 소등, 옥외 체육공간 조명타워 점등 금지

5

업무시간에는 실내조명 30% 이상 소등, 전력피크 시간대에는 50% 이상 소등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해!

다수의 기업들이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며 올 한 해를 보냈다.
그중에서도 G(지배구조)를 제대로 알아야 행복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따소미를 통해 알아보자.

Text 편집실 Illustration 정재경



사우 여러분들의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한
한나의 노력은
계속 됩니다



03:30 PM

사우 여러분~ ESG 경영 포털 구축합니다!

우연히 회사 홈페이지를 보다가, 점심에 ESG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동기가 한 말이 생각난 따소미. “조금 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ESG 관련 정보를 개설하고, 재구성하기로 했어.” ‘아까 점심에 말한 게 이거였구나. 응원 메시지 보내야겠다!’ “ESG 중심으로 메뉴를 개편하고, 신규 메뉴 넣고 바쁘겠네. 파이팅!! 동기야 널 응원한다.”

02:00 PM

한나형 사회적 가치 측정모델이 뭐냐고?

밥을 먹고 나니, 아까 후배가 다시 문자가 왔다. “한나형 사회적 가치 측정모델이 뭐야?” 따소미는 선배로서, 친절하게 답을 쓰기 시작했다. “우리 회사에서 전문가 자문과 내·외부 합의 과정을 통해 개발한 거야. 경영활동을 통해 창출한 비재무적 성과인 사회적 가치를 계량화해 화폐적 가치로 제시하고, 경영전략과 연계해 경영활동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지. 어때?”

04:00 PM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 관련 회의 준비

“10분 뒤에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운영 회의 할게요!” 팀장님의 공지가 있고 난 후 회의 자료를 검토하는 따소미. “아하. 우리 회사에서 부패방지체계의 지속적인 운영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ISO37001 사후 인증 취득을 추진했구나!! 사후 인증 획득하고, 인증도 유지했네? 메모해 뒀어지!”

10:00 AM

주주권리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출근길에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생각났던 ESG 관련 공시 확인! 따소미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확인했다. 한나는 주주권리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ESG 관련 공시 확대 추진을 하고 있다. 따소미는 홈페이지를 보고 배당 정책, 배당 주요자료 등을 확인하며 ESG 관련 공시 규제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일을 맡았다.



한나 홈페이지에서
ESG 관련 공시를
확인하세요!

11:30 AM

한나 ESG경영에 한걸음 더!

밥을 먹으러 가려고 준비하던 찰나, 취준생 후배에게서 문자 한 통을 받은 따소미. 문자에는 링크 하나가 걸려있다. ‘한나, 사회적 가치 성과 측정해 ESG 경영 한발 더’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따소미는 그 기사를 보고 후배에게 답했다. “우리 회사는 사회적 가치 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과측정 모델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중이야! 알고 오면 더 좋을 거야~ 참고해!”

05:00 PM

공공데이터 활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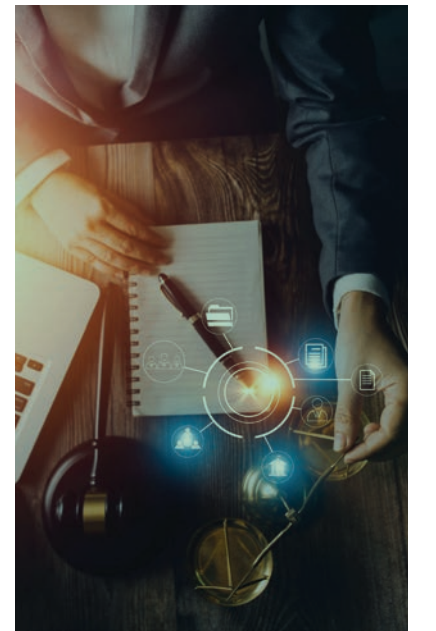
다음 회의 안건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활용성 강화’다. “우리 회사에서 데이터 표준·품질관리 확대를 통해 데이터 신뢰성을 향상하는 중이야. 전량관계원격검침, 열원격검침, DB 등으로 표준·품질관리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네요.” 팀장님이 팁을 주셨다. 따소미는 생각했다. 국민들을 위한 맞춤형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해 고민해봐야겠다고. 🍎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위해!”

GOVERNANCE TIP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



특징

- 2016년 10월 반부패 경영을 위한 국제표준으로 제정됨
- 정부기관, 공기업, 일반기업 등 조직이 ISO9001, ISO14001, OHSAS18001과 같은 다른 표준 통합관리가 가능함
- 조직의 상황과 이해관계자, 부패 위험에 대한 리스크 평가, 목표 수립, 모니터링 및 측정, 내부 관리 기준 및 적용 강조

ISO37001 활용 방안

-부패 리스크 파악 및 제거

- ① 부패위험 파악 및 리스크 평가
- ② 잠재적인 부패 요인 제거
- ③ 체계적으로 부패 예방 및 위험 차단
- ④ 조직의 반부패 노력을 입증하는 수단

-기업의 경쟁력 확보

- ① 반부패 문화 확산
- ② 기업의 반부패 이미지 제고



왼쪽부터 최도현 차장, 아내 김두나 씨, 아들 최봉진 군

고즈넉한 시간여행 새 추억이 스며드는

삼송지사 운영부 최도현 차장 가족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시골마을 옛 정취 가득한 한옥 일주대문 앞에서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멈춰진다. '제비도 쉬어가는 집'이라는 뜻의 '연안재'라는 이름부터 휴식이 되는 듯하다. 쉽고 삶이 어우러지는 곳, 산 깊고 물 맑은 강원도 화천에서 최도현 차장 가족의 새 추억을 담아왔다.

Text 윤진아 Photo 정우철



우리, 한옥 좋아하네?!

나지막한 담 너머 풍경이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바람에 일렁이는 너른 들 판, 이름 모를 농부들이 밤낮으로 일궈온 곡식,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넉넉한 웃음을 선사하는 마을 주민들의 모습은 우리네 마음속 외갓집 풍경 그 대로다. 유년시절 최도현 차장의 외갓집은 경북 영덕에 있는 전통한옥이었다.

“소 여물도 직접 주고 아궁이에 불도 지피던 진짜 시골집이었죠. 틈마루에 누우면 나무에서 올라오는 청량한 감촉이 참 기분 좋았던 기억이 나요. 얼마 전 우리 가족 최애 프로그램인 <1박 2일>에서 한옥 잠자리 북북북 장면이 나왔는데, 한옥 경험이 없는 아들이 눈을 빛내며 유심히 보더라고요.”

누구보다도 여행에 진심인 사람들이지만, 올해 가족 여행에는 희한하게 비가 따라다녔다. 여름 캠핑 땀 화로 불명 도중 비가 와 연기도 좀 마셨고, 집에 돌아와 텐트 말리느라 고생도 꽤 했단다. 오늘 밤에도 어김없이 비 예보가 있지만, 이번만큼은 걱정 대신 기대가 크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다는 게 늘 미안했는데, 덕분에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네요. 기대 이상으로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아들과 함께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금 이 순간’을 만끽하며 살고 싶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빗소리 듣는 게 한옥스테이의 꽃이거든요.(웃음) 아파트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할, 어릴 적 제가 사랑해 마지않던 추억을 아들에게도 남겨줄 수 있을 것 같아 흥분됩니다. 아까 짐 풀고 나서 산책 삼아 동네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물소리를 따라 걷다 만난 계곡물도 정말 깨끗해 놀랐어요. 공기가 좋은 청정지역이라 여름엔 반딧불이가 잘 보인다니, 내년 여름에도 꼭 다시 와보고요.”

마루 위의 낙원

인심 좋은 주인아주머니가 한 아름 갖다주신 군고구마에 봉진이의 입이 함치박만 하게 벌어졌다. 달콤한 냄새를 맡은 고양이 일가족이 인사하듯 줄지어 나와 꼭꼭이와 낭편치를 번갈아 선사하는 통에 또 한 차례 웃음꽃이 피었다. 대청마루에 앉아 햇볕 쬐며 노닥노닥 차 한 잔 마시고 있자니 ‘이게 힐링이지!’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최도현 차장은 삼송지사 운영부에서 환경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수원에서 삼송까지 출퇴근 거리가 꽤 되다 보니 집안일과 육아를 대부분 와이프가 전담하시피 했어요. 도움을 많이 못 줘 미안하고, 불평 없이 잘 챙겨줘 고마울 따름이죠. 표현이 서툴러 마음을 잘 전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마음만큼 더 많이 노력하려고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참 재미없게 하는 재주가 있는데요.(웃음) 아내는 그런 제 얘기를 늘 귀담아들어주고, 저를 많이 믿고 따라주는 고마운 사람이죠.”

고등학교 지리 교사인 아내 김두나 씨는 “말은 저렇게 해도, 속정 깊고 세심한 남편에게 잔소리 한 번 할 일 없었다”며 최도현 차장과 함께하는 인생 여정 매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즐겁다고 했다. 내년이면 초등학교 최고학년이 되는 봉진이는 아빠 엄마를 사이좋게 닮았다. 계획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면서도 밝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열두 살 봉진이의 꿈은 인공지능 전문가다.

“레고 조립과 자동차 로봇 만들기를 좋아해요.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끈기 있게 끝까지 해내더라고요. 맞벌이 부모의 부재를 채워줄 학원 일정도 아무지게 소화해내고, 만반의 수업 준비는 물론 학습태도가 좋다고 선생님들이 칭찬하셔서 걱정을 덜었어요.”

화천의 또 다른 매력 즐기기

아를테마수목원

수령 100년의 느티나무 ‘거례리 사랑나무’가 화천강을 바라보고 서 있다. 햇살 좋은 날 따사로운 빛을 뿜어내는 풍경도 아름답고,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은 물안개가 자욱해 운치 있다. 북한강 자전거 도로와 연결돼 라이딩 도중 잠시 쉬어가기에 그만이다.

강원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514-1



조경철천문대

천문대가 있는 해발 1,010m 광덕산 정상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은하수 촬영이 가능한 무공해 청정지역이다. 웅장한 산세 속에 우주



의 신비와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광덕산에서 휴전선까지는 직선거리로 20여 km에 불과해 북녘땅도 지척에 보인다.

강원 화천군 사내면 천문대길 431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며 담벼락 아래 줄지어 서 있는 장독대까지, 넓은 마당을 뛰어다니던 봉진이의 발길이 여러 번 멈췄다. 반나절 만에 시골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한 아들에게 부모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자연의 혜택을 실컷 누리게 해 주고 싶다.

청정자연에서 만난 정갈한 행복

운이 좋으면 다람쥐나 노루를 구경할 수도 있다는 말에 봉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광활하게만 느껴지던 자연이 한층 가까워지는 공간, 시골에서는 아이들의 모든 상상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마당 가득 쌓인 흙이 곧 스케치북이고, 때를 모르고 피어난 야생화를 구경하다 꽃반지를 만들 수도 있다. 나무와 흙, 새가 있는 공간에서 그냥 뛰놀게 하면 되는 특별한 것도 없는 일이 엄연한 교육의 일부라는 최도현 차장의 이야기에 힘이 실렸다. 아직 하루가 다 끝난 게 아니다. 계곡에서 물수제비를 뜨다 해가 지면 별구경도 하고, 따뜻한 온돌 아랫목에 누워 책도 읽고, 웅기종기 모여앉아 보드게임도 할 계획이다. 자연의 생태 주기에 기꺼이 보조를 맞추며 오랜만에 가족의 손을 꼭 잡아본다. 손에 손 맞잡고 시골길을 거니는 최도현 차장 가족에게 청량한 산바람이 반갑다는 듯 악수를 건넨다. 🍁



끌림

재무처 재무부 김태훈 팀장



Audio

Book

‘여행은 왜 가는가?’라는 질문에 제가 찾은 답은 가장 비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가장 일상적인 나로 돌아오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떠나면 돌아오고 싶고, 머물러 있으면 다시 떠나고 싶은’ 이 과정을 평생 반복하며 사나 봅니다. 여행은 누가 뭐라 해도 비일상적인 경험이지요. 여행을 통해서 만나는 낯선 풍경, 그리고 그곳에서 느끼는 감정들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일상과 비일상, 떠남과 머무름,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알아가고,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Text·Voice 재무부 김태훈 팀장 Photo 조병우

이야기 넷, 그렇게 시작됐다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 얘기해 줄까요?
(중략)

일단 왼쪽 벽에다가는 한 남자를 그려요.
벽 쪽에 몸을 바짝 붙이고, 오른쪽 벽을
향해 몸을 돌리고는

살금살금 숨바꼭질하듯 눈치를 보고 있는
옆모습의 한 남자들요.

오른쪽 벽 역시, 마찬가지로
한 여자를 그려요.

여자 역시 벽 쪽에 붙어서 조심스레
누군가를 훑쳐보기라도 하듯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 옆모습 여자들요.

실제 거리는 몇 센티에 불과하지만
90도로 꺾인 벽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저 벽 뒤에 누군가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죠.

(중략)
사랑의 시작은 그래요.

어떤 이상적인 호감의 대상이 한번
내 눈을 망쳐놓은 이후로,

자꾸 내 눈은 그 사람을 찾기 위해
그 사람 주변을 맴돌아요.

한 번 본 게 다인데 내 눈은 몹쓸 것으로
중독된 무엇처럼

그 한 사람으로 내 눈을 축축하게
만들지 않으면

눈이 바짝 말라비틀어질 것 같은 거죠.

책 속으로

*듣는 서점은 한난 직원이
직접 책을 읽어주는
코너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김태훈
팀장이 읽어주는 <끌림>
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난> 웹진에서도
듣기 가능합니다.



이야기 서른넷, 뒤

누구든 떠나는 순간이 되면 본능에 가까운 정도로 뒤를
돌아보게 된다. 뒤를 돌아보면서 거꾸로 매달려 있던
자신과, 가능하다면 한동안 품고 살았던 정신의 부산함을
그 자리에 걸어두고 떠나려 한다. 그래서 돌아본다는 것은
쑥쑥한 일이 되고 수심 깊디깊은 강을 건너는 일처럼
시작하지 말아야 했을 일이 돼버린다.

(중략)
발걸음을 멈춰 서서 자주 뒤를 돌아다본다.

그건 내가 앞을 향하면서 봤던 풍경들과 전혀 다른
느낌을 풍경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보고 지나온
것이 저거였구나 하는 단순한 문제를 뛰어넘는다.

아예 멈춰 선 채로 멍해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일도
생겨버리기 때문이다. 내가 뒤돌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냥
뒤로 문힐 뿐인 것이 돼버린다.

내가 뒤척이지 않으면, 나를 뒤집어놓지 않으면
삶의 다른 국면은 나에게 찾아와주지 않는다.

어쩌면 중요한 것들 모두는 뒤에 있는지도 모른다. 📌



BOOK COMMENT

<끌림>에는 파리에서 만난 어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사는 그 청년은 자
신의 직업이 파리를 여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상을 여행처럼 느낄 수 있는 삶은 얼마나 흥
미진진한 삶일까요? 일상의 관계, 나의 느낌과 기억, 그것들의 집합체가 우리의 삶, 개개인의 본
질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금쪽아~ 아빠, 엄마의 마음은...!



“엄마는 짜장면 안 좋아해.
우리 딸 실컷 먹어.”

**짜장면이 싫은 게 아니고, 자식을 배불리
먹이기 위한 부모의 착한 거짓말**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god의 데 뷔곡 <어머님께>의 한 구절이다. 슬프면서도 가슴 뭉클한 이 노래는 국민적인 인기로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이 구절을 부르면서 목 놓아 울었던 사람도 많았을 것. 왜냐하면 노랫말의 속뜻은 어머니는 진짜 짜장면이 싫었던 게 아니었고, 가난한 형편에 자식이라도 배불리 먹이려는 거짓말이었던걸 어른이 된 지금에 서야 알게 되었으니까.



“아빠 아픈 데 없어.
아직 쌩쌩해.”

**바쁘게 사는 자식에게 걱정 안 시키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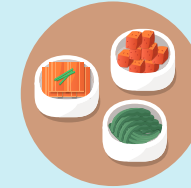
사실은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다. 나이가 들면서 왜 아픈 곳이 없겠는가.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몸에 이상 증상을 느끼더라도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생각하거나, 자식들이 염려할까 숨기는 경우가 많다. “괜찮다”, “아픈 데 없다”라는 말을 믿지 말고, 큰 병으로 이어지기 전에 부모님의 건강을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자.



“공부 잘하는 거
하나 소용없다.”

**공부 잘하는 것보다 건강하고 바르게
잘 커야 한다는 걸 강조한 말**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크게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님은 없다. 뜨거운 학구열로 자식들에게 공부를 강조한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SKY 캐슬>의 부모들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 드라마 주인공들도 물론 ‘자식을 위해서’였겠지만, 드라마의 결말은 처절했다. 그리고 하나의 교훈을 던지기도 했다. 공부보다 중요한 것은 자식의 행복이라는 것을. 자식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들은 공부보다는 자식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는 걸 가장 우선순위로 두지 않을까.



“택배 보냈다. 집에서 먹던
반찬 싸서 보냈어.”

**정말 먹다 남은 반찬이 아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사랑의 반찬**

“밥은 잘 먹고 다녀?”, “아침밥 챙겨 먹니?” 오랜만에 걸려 온 엄마의 전화. 엄마는 늘 자식이 밥을 잘 먹었는지부터 확인하신다. “택배 보냈는데 엄마 먹는 반찬 싸서 보냈어.” 정신 없이 바쁜 탓에 건강으로 대답하고는 끊어 버렸는데, 며칠 후 집 앞에서 여러 개의 택배 상자가 도착했다. 상자 안에는 봉지 봉지 나눠서 냉동시킨 사골국물과 어릴 적 좋아하던 소불고기, 빨갛게 익은 김치 3종 세트 등 다양한 반찬들이 가득했다. 눈물 없이 먹기 힘든 사랑 가득한 엄마표 반찬.



“내려온다고?
바쁜데 뭐 하러 와~”

**자식이 반가우면서도 미안한 게
부모의 마음**

부모님이 명절을 기다리는 이유 중 하나는 늘 자식과 손주들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무가 바빠서, 또 코로나19 때문에 얼굴 보기가 어려워지면서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부모님의 아쉬움은 클 수밖에. 그러다 자식이 “이번 주말에 갈게요”라고 하면 부모님은 “바쁜데 뭐 하러 와~”라는 마음과 반대되는 말을 하신다. 전화를 끊은 뒤에는 며칠이나 남은 자식의 방문을 위해 대청소를 하고, 장을 보는 등 부모님의 몸이 분주해진다.



“빨리 일어나,
벌써 8시야”

**자식이 자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현명한 노하루**

어르고 달래다 결국 “일어나”라는 고함을 지르고야 마는 엄마와 10분만, 아니 5분만 더 자려는 아이의 대결이 매일 아침 펼쳐진다. 과연 아이를 침대에서 벗어나게 할 방법은 무엇일까. 이 아침 전쟁을 어떻게 해야 끝낼 수 있을까. 해법이 하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부모가 성공한 노하우를 소개한다면, 바로 착한 거짓말! “늦었어, 8시야”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 일어났을 때 시간은 아마도 6시 30분쯤 일 것이다. 오늘도 제시간에 등교 성공! 📌

작은 혁신 큰 가치

평범한 물건 뒤에 숨은 탄생의 역사

일상 속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평범한 물건에는 사소하고도
놀라운 사연이 깃들어 있다.
예컨대 쉽게 뺏다 붙일 수 있는
메모지인 포스트 잇의 경우,
접착력이 약해 실패한 결과물로
남았던 접착제를 종이에 적용하면서
획기적인 문구 용품으로
탄생할 수 있었다.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명한다.

Text 김주희



IDEA

#1+1 결합 #모자

가난한 화가의 열정이
뜻밖의 발명으로

지우개 달린 연필

지금이야 휴대폰 화면을 톡톡 두드리는 것이 익숙해졌다지만 누구에게나 과거 연필과 지우개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 잘못 쓴 글씨를 연필 뒤에 달린 지우개로 쓱쓱 지워본 기억이 있을 터. 지우개와 연필이 결합된 1+1 형식의 이 연필은 1860년대 미국의 가난한 화가 지망생 하이만 리프먼에 의해 탄생했다. 사람들에게 초상화를 그려주던 그는 건망증이 심해 자주 지우개를 잃어버렸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탓에 여러 개의 지우개를 사지 못했고, 고심 끝에 연필에 실로 지우개를 매달아 사용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문득 모자를 쓴 자신의 모습이 비친 거울을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얇은 양철 조각을 잘라 지우개를 연필 끝에 부착해 지우개 달린 연필을 탄생시켰다. 친구의 도움으로 지우개 달린 연필의 특허를 등록했고, 이 연필은 시판되자마자 히트 상품으로 등극했다. 유럽에서는 특허 등록이 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고, 그의 발명품을 사들인 연필회사는 엄청난 부를 얻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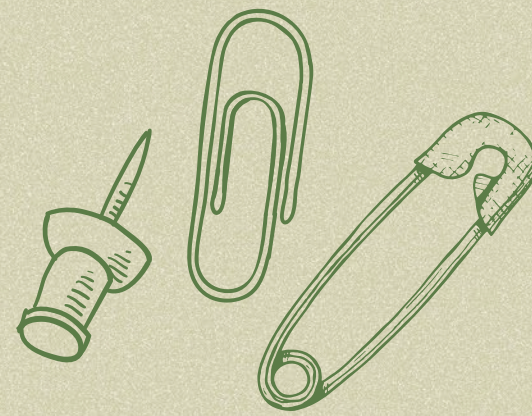
IDEA

#초간단 아이디어 #심플의 쓸모

활용 만점 작은
공로자

클립 & 압정 & 옷핀

크기는 매우 작지만 없으면 불편한 물건들이 있다. 클립, 압정, 옷핀은 약방의 감초 같은 요긴한 존재로 자리한다. 클립의 탄생 스토리는 18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의 새뮤얼 페이는 옷감에 상표를 붙이기 위해 하나의 철사를 엇갈리게 구부려 특허 등록을 받았다. 클립의 디자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화되었고, 훗날 영국의 회사 잼 매뉴팩처링이 지금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원리의 클립을 선보였다. 타원형이 이중으로 겹쳐진 이 클립이 바로 그것이다. 압정은 1900년대 초반 독일의 시계 제작자인 요한 키르스텐이 고안했다. 작업 중 메모를 벽에 붙일 때 엄지손가락이 아프자 작은 황동 조각을 두드려서 머리를 만들고 핀을 박아 붙여 압정을 만들었다. 옷핀은 로만 티스트 남성에 의해 탄생했다. 1840년 영국의 월터 헛트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애인의 아버지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지 못했고,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이 가진 손재주를 이용해 살을 찌르지 않는 안전한 핀을 만들었다. 당시 사람들은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바늘 핀으로 리본을 옷에 꽂았는데 찢릴 위험이 컸던 터.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철사와 펀치를 사용해 옷핀을 만들었다. 그는 특허 출원을 마치고 리본 가게에 특허를 팔아 해피 엔딩을 맞았다.





IDEA

#결핍의 힘 #임시방편

와플도 접시가
될 수 있나요?

아이스크림콘

때로는 '결핍'이 또 다른 '존재'를 탄생시키기도 한다. 굉장히 무더웠던 1904년 어느 여름날,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 세계박람회장에는 50여 개의 아이스크림 판매대와 수많은 와플 가게가 영업 중이었다. 그 사이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던 찰스 멘체스는 일찍부터 컵과 접시가 동이 나는 난감한 상황에 맞닥뜨렸다. 남은 시간 동안 장사를 하기 위해 뾰족한 수를 떠올리던 그는 주변 와플 가게로 향했다. 와플을 원추형으로 둥글게 말아 아이스크림을 담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때 시리아 제빵 업자 어니스트 함위 또한 와플에 아이스크림을 올려 팔았다. 당시 같은 공간에 있던 상인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와플에 아이스크림을 담기 시작했고, 저마다 아이스크림콘을 발견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임시방편으로 떠올린 아이디어는 오늘날 아이스크림을 더욱 편하고 풍성하게 즐기는 일상이 되었다. 결국 박람회에는 아이스크림콘이 탄생한 결정적인 역사로 남았고, '풍요의 뿔이 솟은 세계 박람회'라는 별칭과 유명세를 얻기도 했다.

미식의 즐거움을 더한 참신한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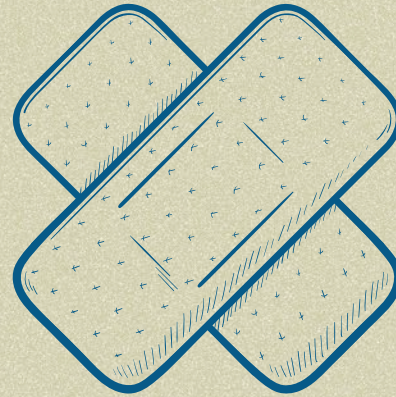
IDEA

#우연한 시도 #소재의 전환

아이의 공책을
뜯었을 뿐인데

종이 커피필터

커피 좀 마실 줄 안다는 이들은 핸드드립의 매력을 잘 알고 있다. 맛과 풍미를 내 취향과 개성에 맞춰 조절할 수 있고, 물의 양과 온도, 물줄기의 굵기, 뜯 들이기 등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오묘한 매력을 지녔다.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도 핸드드립 커피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된 데에는 독일의 작은 마을에 살던 가정주부 멜리타 벤츠의 역할이 컸다. 매번 커피를 내릴 때마다 용 소재의 형값을 사용했는데, 보관과 세척에 불편함을 느끼던 어느 날, 그녀는 이들의 공책 한 장을 뜯어 이를 활용해 커피를 내려 보았다. 의외로 커피 맛이 깔끔하고 뒷정리도 간편했다. 종이 커피필터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이에 아이디어를 더해 개발에 매진한 결과 1908년 일회용 종이 필터를 사용하는 페이퍼 드립을 발명했다. 구멍이 여러 개 뚫린 양철 컵 바닥에 압자를 대고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은 커피 업계에 혁신을 일으켰고 마침내 자신의 회사를 설립했다. 종이 커피필터로 시작한 작은 기업은 커피메이커, 각종 원두커피 등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IDEA

#질문 #결합과 변주

사랑꾼 남편의 사려 깊은
아이디어

밴드에이드

흔히 대일밴드라고 부르는 제품의 정확한 이름은 밴드에이드로, 발명 당시 제약업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밴드에이드는 존슨앤존슨의 탈지면 구매 담당자인 얼 딕슨의 아내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요리를 하면서 손을 베이거나 화상을 입곤 한 아내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 그는 '더욱 간편한 붕대는 없을 까?'라는 질문을 시작했고 그 해답으로 상처를 입을 때마다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붕대를 떠올렸다. 작은 메모지 크기의 모양으로 미리 붕대를 자른 후에 기다란 반창고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붙였다. 그 후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붕대 위에 크리놀린을 덧입혔다. 어느 날 그는 회사 상사에게 새로운 붕대 사용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고, 1921년 회사는 접착식 붕대를 상품화하기로 결정했다. 얼 딕슨은 자신의 발명품으로 단숨에 부회장 자리에까지 올랐고, 밴드에이드는 현대의 발명품이 되었다. 훗날 밴드에이드는 다양한 형태와 디자인으로 진화하며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으로 거듭났다. 현재는 항생 처리 기술을 입은 제품부터 캐릭터나 그림이 그려진 어린이용 제품까지 생산되고 있다.

IDEA

#집념 #無에서 有

유통가 풍경을 바꾼 혁명

바코드

마트 대부분의 상품에 붙어 있는 바코드는 유통가에 혁명을 일으킨 발명품으로 불린다. 가는 막대 여러 개가 도열된 작은 네모 안의 코드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스캐너에 가져다 대면 뽁 소리와 함께 포스 화면에 상품 정보가 입력된다. 1940년대, 미국의 슈퍼마켓은 한 달에 한 번씩 매장 문을 닫고 전 직원이 제품별 판매량과 재고 수량을 일일이 확인하곤 했다.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에 불편함을 느끼던 야채 가게 주인은 한 공과대학을 찾아 대학원장에게 상품의 정보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하지만 이를 흥미롭게 생각한 대학원생은 친구 노먼 조지프 우드랜드에게 기술 개발을 제안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우드랜드는 모스 부호와 영화의 사운드 트랙(필름 양 끝에 잉크를 발라 소리에 따라 빛의 투명도에 변화를 주고, 이를 전자적으로 읽어 들여 소리를 발생시키는 기술)에서 힌트를 얻어 새로운 표기 방법을 개발하고 1952년에 특허를 출원했다. 그 이후에도 연구는 계속되었다. 훗날 그는 IBM에 입사해 연구를 거듭하며 바코드의 새로운 형태는 물론 바코드를 읽는 스캐너 시스템까지 개발하기에 이른다. 이 바코드 시스템은 1974년, 미국 오하이오 주의 한 슈퍼마켓에서 처음 사용되면서 유통 혁명의 물꼬를 텄다. 집념에 가까운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다. 🍎



상큼하고 쫄깃한 석류소스 찹스테이크



감기와 갱년기 장애를 예방해주는 석류와 원기회복에 좋은 소고기가 만났다. 상큼하고 쫄깃한 식감으로 사랑받는 두 식재료의 만남이라니! 어떤 요리가 탄생해도 맛은 단연 일품일 터. 다양한 모임으로 가득한 연말에는 이 요리가 어떨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사랑받는 찹스테이크. 거기에 제철을 맞아 영양 가득한 석류소스를 곁들이면 화려하고 풍성한 연말을 장식할 수 있다. 🍷

Text 최선주 Photo 정우철 Food Styling 박정윤(노하우스 스튜디오 knowhow's studio)

재료 및 용량

소고기 400g, 파프리카(빨간색, 노란색) 각 1/3개, 양파 1/2개, 마늘 한 줌, 양송이버섯 4개, 아스파라거스 2개, 석류알 1T
소고기 마리네이드 올리브유 2T, 소금, 후추 소스 석류 주스 100ml, 우스터소스 2T, 굴소스 1T

Recipe

- 1 — 요리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한다.
- 2 — 소고기는 큐브 모양으로 썰어 마리네이드 한다.
- 3 — 파프리카, 양파는 큐브 모양으로 썰어주고, 양송이버섯과 마늘은 반으로, 아스파라거스는 4등분 한다.
- 4 — 분량에 맞는 소스 재료를 섞어 준비한다.
- 5 — 달군 팬에 2의 마리네이드 해둔 소고기를 구워 준비한다.
- 6 — 팬에 썰어둔 야채를 볶다가 구워둔 소고기와 소스를 부어 볶고 마지막에 석류알을 함께 넣어 완성한다.



Recipe tip

석류청을 이용해 소스를 만들어도 석류의 맛을 조금 더 풍부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완성된 요리에 치즈를 살짝 뿌려도 맛이 좋습니다. 취향에 따라 레시피를 바꿔서 나만의 석류소스 찹스테이크를 즐겨보세요.

행운가득 프랑스자수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한 해를 보내야 하는 아쉬움 때문인지, 싱송송한 마음이 가득한 12월. 그래도 너무 아쉬워 말자. 연말을 화려하게 장식해 줄 특별한 날, 크리스마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깐. 때마침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집안을 크리스마스 감성으로 채워줄 재밌는 놀이가 있어서 소개한다. 이름하여 프랑스자수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자수도 놓고, 리스도 만들고~! 지루할 틈이 없는 프랑스자수 크리스마스 리스로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를~!

Text 최선주 Photo 정우철



리스와 함께 행운을 맞이하세요

크리스마스 기분을 내는 꾸미기 세트에는 뭐가 있을까. 크리스마스트리, 전구, 리스... 당장 떠올려보면 이 세 가지가 생각이 난다. 그중 크리스마스 리스는 만들기도 쉽고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인기가 있어 많은 사람이 도전하는 것 중 하나. 동그란 원은 'Infinite'를 상징하며 영원함, 불멸을 뜻하고, 액운을 막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리스를 대문이나 방문에 걸어놓는다고. 액운을 막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리스로 좋은 시간 보내기를 바란다.

특별한 날을 더 특별하게!

크리스마스 리스가 문 앞에 걸려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아진다. 마치 "어서 오세요~! 당신을 기다렸어요"라고 환영해 주는 느낌이랄까. 시중에는 예쁜 디자인의 리스 완제품이 많지만, 특별한 날을 장식할 아이템이니 기왕이면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그중 감성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리스 만들기 키트를 추천한다. 이름만으로도 기대되는 '프랑스자수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키트'다.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고, 포인트로 자수까지 수놓는 재미가 있다는 게 이 키트의 매력. 이 리스의 핵심 포인트는 레터 자수. 도안을 보고 마음에 드는 서체를 리넨 리본에 따라 쓴 뒤 준비된 실로 자수를 놓으면 나만의 리스가 완성된다. 만드는 영상도 함께 동봉되어 있어 어렵지 않다. 🍷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1
키트 안의 준비물을 꺼낸다.



2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고른 후, 먹지를 대고 따라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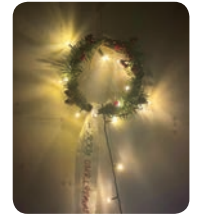


3
글씨를 따라 수를 놓는다.



4
리스를 꾸민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분당사업소 공무원
승현진 주임

올해 7월에 태어난 조카와 함께 보낼 첫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종지사 공무원
황재하 대리

작은딸 아이가 정성껏 접은 종이하트로 더 꾸며주니, 크리스마스 리스가 더 예뻐졌네요. 모두 해피메리크리스마스!^^



열수송처 열수송공사부
박민철 과장

올해는 날이 따뜻해 크리스마스가 멀게만 느껴졌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들다보니, 크리스마스가 성큼 다가온 느낌이에요.

KDHC NEWS

01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기업 최초 ‘ESG 최우수기업’ 선정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한국ESG기준원(舊 한국기업지배구조원, KCGS)이 발표한 ‘2022년 ESG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최우수기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한국ESG기준원은 지난 2002년 설립 이래 기업의 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기업지배구조 관행 개선을 위해 ESG부문의 우수 기업에 대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2022년에는 이사회 중심의 실질적 ESG 리더십을 요구하는 강화된 평가모형이 적용되었으며, 일반 상장사 1,033개사 등을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되었다. 이 중 7개 기업이 ESG 부문 우수기업에 선정되었으며 공기업으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한국ESG기준원은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응한 적극적 사업모델 개선 및 이해관계자 소통 활성화로 ESG 경영 실행력 강화”라고 최우수상 선정 사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친환경설비 투자 강화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다각화를 통한 저탄소경영, 탄소중립 사회 구현 기여 ▲인권, 안전보건, 동반성장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한 공급망 정책 마련 및 공급망 전반의 사회적 책임 수준 제고 ▲ESG위원회 설치를 통해 기후변화, 협력사 등 주요 지속가능성 이슈에 적극 대응 및 이해관계자와 소통 강화 등을 꼽았다. 정용기 한남 사장은 “한 번의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투명경영을 실천하여 공공부문의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02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 위기 극복 위해 조직 역량 집중!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불안 등 에너지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을 선도하고자 ‘에너지 위기대응 특별대책단(TF)’을 운영해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한남은 건물 에너지 사용을 10% 절감하는 정부의 ‘에너지 다이어트 10’ 활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난방온도 제한, 조명 소등 등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강령’을 준수하고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활동을 시행한다.

또한 지역난방 사용자의 노후·고장 설비 교체사업 지원과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설비운영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사업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남은 동절기(‘22년 10월~’23년 3월) 기간 중 열 21천Gcal, 전력 341MWh의 에너지를 절감할 계획이다. 한남 관계자는 “한남은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요 소식 NOV+DEC 2022

03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 3년 연속 1위 기업 선정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2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3년 연속 산업통상자원부 시장형 공기업 부문 지속가능성 지수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표준협회가 발표하는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KSI, Korea Sustainability Index)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기준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이해관계자 약 25,000여 명이 참여해 평가하는 조사이다.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주주, 소비자, 협력사, 지역사회, 내부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그룹의 평가를 통해 측정되며, 올해는 49개 업종 210개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 부문 별 1위 기업이 선정됐다. 한남은 ESG위원회 신설 및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ESG 경영체계 구축, ‘지역난방 안전 실버지킴이’ 사업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푸르메 여주팍’ 설립을 통한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지속가능 상생숲 ‘We 포레스트’사업 및 ‘상생숲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 확대, ‘국내최초 열에너지 제품군에 대한 저탄소 제품 인증 취득’을 통한 환경경영 실천 강화 등 E, S, G 전 분야에 걸쳐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탁현수 한남 부사장은 “한남이 3년 연속 지속가능성 지수 1위 기업으로 선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한남은 앞으로도 ESG 경영 확산을 통해 경영 전반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04

한국지역난방공사, ‘2022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 열수송관 안전 신기술 선보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대구 EXCO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K-SAFETY EXPO 2022)’에 참가해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열수송관 안전관리체계 및 신기술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한남은 이번 박람회에서 열수송관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 신기술인 한남맵(열수송 통합관리 시스템), 열수송관 감지선, 차량탐재형 열화상카메라, IoT(사물인터넷) 온도센서 등을 선보였다. 한남맵은 전국 약 5,000km 열수송관과 14,000개 이상의 밸브, 7,000여 개의 지역난방 사용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각종 시설물을 공간정보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사고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차단 밸브 분석 등 안전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열수송관 감지선과 열화상 카메라는 열수송관의 손상, 누수여부를 손쉽게 진단하는 장비이며, IoT온도센서는 열수송관 누수 및 주변 굴착상황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한다. 한남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집단지너지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및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하게 콘텐츠를 구성했다”라면서, “앞으로도 한남은 친환경에너지 공기업으로서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신기술 개발 등 안전업무 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05

지역난방 열수송시설 긴급자재 당일 조달체계 완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수송시설 긴급자재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한남 평택지사 내에 약 310평 규모의 긴급자재보관소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긴급자재보관소는 국내 최초 열수송시설 긴급자재 전용 실내 보관시설로써 관경별 직관, 각종 이형관 등 필수자재를 보관해 동절기에 안정적으로 지역난방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구축됐다. 긴급자재 필요 시 신속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및 전용 운반트럭을 상시 배치해 선주문 후제작 방식으로 조달에 평균 두 달 이상 소요되던 열수송시설의 조달 기간을 4시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한편, 한남은 긴급자재보관소의 지원 대상을 타 집단에너지사업자까지 확대해 업계 상생협력 강화 및 공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한남은 지난 5월 타 집단에너지사업자와 긴급자재 지원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 현재 총 22개 집단에너지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체계를 갖췄다. 한남은 지난달까지 타 사업자에게 4차례 긴급자재를 지원해 지역난방 열공급 중단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안전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

06

한국지역난방공사, ‘2022 올해의 SNS’에서 공기업 블로그 부문 최우수상 수상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 11월 21일 ‘제8회 2022 올해의 SNS’에서 공기업 블로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제8회 2022 올해의 SNS’는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대한민국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남 블로그 채널은 공사 핵심사업, 에너지 정보, 기후위기,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등 전문 정보를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일상생활 중 필요한 생활정보 관련 콘텐츠, 대학생 기자단을 활용한 에너지 정보 콘텐츠, 대국민 이벤트 등을 통해 활발한 대국민 소통활동도 펼쳐왔다.

블로그 콘텐츠들은 한남의 네이버 포스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타 SNS 채널과 연계 게재 더 많은 국민들에게 에너지 분야 정보들을 제공했다. 이러한 노력 결과 현재 약 4,400여 명의 구독자와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기준 약 22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



한남 SNS 보고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어느덧 연말입니다. 2022년에도 열심히 달려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연말은 그 누구보다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한남 SNS에도 볼거리들이 많이 있으니 놀며, 쉬며 구경하고 가세요. 여러분의 연말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드릴게요!

신재생에너지로 집단에너지를 생산한다고?



Our Energy, Save Green value!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친환경 경영을 로건입니다. 한남은 기후 위기

가 심화됨에 따라 친환경 경영에 중점을 두고 탄소중립 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지 따뜻한 클라쓰에서 함께 보실까요?



www.youtube.com/kdhcmedia



캠핑의 꽃, 겨울 캠핑!

캠핑 인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캠핑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때에 해도 색다른 매력이 있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캠핑 마니아들 사이에서 겨울은 캠핑의 꽃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이유를 알아볼까요?



www.facebook.com/FKDHC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내 차는 몇 등급?!



편리한 이동 수단 자동차! 다들 인정하시죠? 하지만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으며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대기 환경을 심하게 오염시키는데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소개합니다.



blog.naver.com/kdhc2017



환경위기사계를 아시나요?

환경위기사계는 지구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재단이 일본 아사히 글라스 재단과 함께 1992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



www.instagram.com/kdhc_on



2022년 9+10월호 독자의견을 소개합니다

조*석 님

①

독서의 계절 가을이라 그런지, '듣는 서점' 코너가 반가웠습니다. 기사 속 QR코드를 통해 한남 직원분이 읽어 주는 잔잔한 음성 잘 들었습니다. 듣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어린 시절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라 행복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음성 기사가 많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숙 님

③

'명사에게 묻다'의 정신건강의학과 윤홍균 원장의 인터뷰를 관심 깊게 읽었습니다. 평소 자존감이 낮아 고민이었는데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나에게 해주는 등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이 기사를 계기로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한 단계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임 님

②

아름다운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표지로 장식된 9+10월호도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퇴근길 문화' 코너의 '전국 리단길 모음 zip' 기사가 유익했습니다. 각 지역의 특색과 개성을 담은 골목길이야말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을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 속 전국 리단길을 잘 메모해 두고,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찾아가 행복한 추억 만들고 와야겠습니다.^^

이*현 님

④

출퇴근 시 주로 전철을 이용하는 제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동탄역' 관련 기사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남과 코레일 측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냉·난방을 공급하고, 민원 처리를 하는 등 안정적인 역사 환경을 유지해 나가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점검'을 최우선으로 해 최상의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는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독자와 함께하는 2022 <따뜻:한남> 이벤트

EVENT 하나

웹진에서 따소미 찾기

녹색 산타옷 입은 따소미 찾기!
웹진 페이지마다 녹색 산타옷 입은 따소미가 숨어있어요. 꼭꼭 숨은 따소미를 찾아주세요.



선물 문화상품권 5천 원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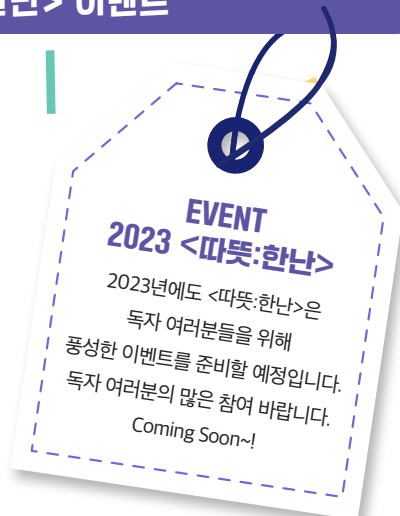
EVENT 둘

독자의견

<따뜻:한남> 읽고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았던 기사, 소개되었으면 하는 내용 등 <따뜻:한남>을 읽고 의견 남겨주세요.



모든 이벤트는 <따뜻:한남> 웹진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한남, 세상을 녹색에너지로 채웁니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저탄소 녹색에너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깨끗하고
따뜻한 에너지 세상을 열어갑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KOREA DISTRICT HEATING CORP.